

설날 추모 예배

인 도 자
“ 사랑하는 고인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순간 같을 뿐 임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 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 께
28 장

기 도 (가족 중 대표자가 기도하시거나 아래 공동기도문을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인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행했던 부족했던 모든 허물을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서 내게 잘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모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형제간에 화목하고, 생활에 근면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 께
『시편 90편 14-16절』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인 도 자
『 믿음의 후손들이 받을 축복 』

우리 인간들에게 시대를 불문하고 필요한 삶의 조건은 아마도 평안과 형통일 것입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조건들을 구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 같은 삶의 절대조건인 평화와 형통은 요원한 일로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성경적으로 평안과 형통 등의 삶의 조건, 그 축복들이 어떻게 오는지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받게 되는 축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겠습니다.

첫째, 우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라고 했습니다. 때로 시련 중에 밤은 고통이 깊어지고 또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아침이 오면 고통이 끝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개인들과 가정에도 이런 보살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보상들을 받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시련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사탄에 유혹에 의해서 오는 시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연단 등으로 해서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경우의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들입니다. 모세는 15절에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년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과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믿음의 후손, 믿음의 가문들로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회복의 은총을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끝으로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속에서 이뤄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 모든 역사와 인간의 만사는 변함없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인도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궁극적인 실패가 되고 심지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뤄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은 철저히 실천해나가는 가정과 온 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 께
* 추모의 순서

- 가족 중 대표가 조상님들의 유업 혹은 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약 1-2분동안 모든 가족이 무릎을 꿇고 둘러앉아 묵상기도를 한다.

다 함 께
* 찬 송 438 장

다 함 께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설날 추모 예배



28

NETTLETON: 8.7.8.7. D.
We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1813.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내영혼이 응축되어 438

WHERE JESUS IS 'TIS HEAVEN: 8.8.8.8. REF.
J. M. Black, 1898

1000